

# 박물관학 (博物館學)

金 鍾 焱

(書記官)

## 목 차

- |                                |                   |
|--------------------------------|-------------------|
| 1. 머리말                         | 6. 박물관학의 유래 및 정의  |
| 2. 세계의 박물관                     | 7. 박물관학의 역할       |
| 3. 박물관의 다양성                    | 8. 박물관학 과목들       |
| 4. 세계의 박물관학 교육                 | 9. 다른 학문과의 관계     |
| 5. 영국의 박물관학 교육과 레스터대학<br>박물관학과 | 10. 박물관학 교육의 중점요소 |
|                                | 11. 맺는말           |

## 1. 머리말

박물관학(Museum Studies)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학문이라서 가끔 관심있는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전공하게 된 동기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굳이 말한다면 박물관의 숫적증가와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비해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리요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점을 박물관학을 통하여 알고 싶었고, 다른 이유는 참고할 관련자료를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1989년부터 2년간 해외유학의 기회를 얻어 박물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을 접할 수 있었다. 학교는 영국에서 최초로 박물관학과를 개설한 잉글랜드 중부 레스터(Leicester)대학을 선택하였다. 이 대학은 세계 40여개국의 학생들이 모여 박물관학의 디플로마(Diploma)과정과 석·박사과정을 밟는 박물관분야에서는 꽤 명성이 높은 대학이다. 나의 지도교수였던 제프리 푸이스(Lewis,G.)씨는 1988년까지 국제박물관회의(ICOM: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의 의장직을 6년간 역임한 분으로 우리나라 박물관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대학의 박물관학과장을 오래 맡기도 하였다.

## 2. 세계의 박물관

최근 20~30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박물관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고 조사자마다 각기 다른 현황을 발표한다. 19세기말 까지의 박물관은 유럽과 미국이외의 지역은 그 수가 매우 적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까지도 영국·불란서·포르투갈·벨기에·네델란드 등 식민통치세력에 의해 지배되었던 영토내의 일부 증가는 있었으나 세계적으로 박물관 수의 큰 증가는 없었다.

영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위원회(MGC:Museum and Galleries Commission)는 1987

년 영국의 박물관의 수가 1971년에 비해 두배가 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신규 박물관 중 절반은 수송·기술·사회 및 산업역사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유물을 수집하는 사립 박물관들이라고 하였다. 영국 박물관 및 미술관위원회 보고서 '88~'89에 의하면 영국의 박물관의 수는 약 2,500개라고 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1876년 200개소이던 박물관이 1919년 600개소, 1940년 2,500개소, 1965년 5,000개소, 1974년 7,000개소로 증가하였다. 1977년 허드슨(Hudson, K.)은 1960년대 미국에서는 한 주 동안에 3개소의 비율로 새로운 박물관이 개관되었고 매 5년마다 약 10%씩 증가한다고 계산하였다. 북미지역 역사기관목록을 발간하는 아메리카주 및 지방역사협회는 1986년 공식 박물관명부를 발간하였는데 전체 13,000개 기관 중 거의 10,000개소가 박물관이거나 박물관을 운영하는 유적지였다. 국제박물관회의의 한 연구 보고서(De la Torre and Monreal, 1982)는 세계에 약 26,700박물관이 있으며, 이들의 삼분의 이는 선진국에 있다고 평가하였다.

허드슨과 니콜스(Nicholls, A.)는 1985년 세계에 약 35,000박물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동물원·수족관·식물원과 주거중인 역사적 농장 등 생물의 전시를 포함한 숫자이며, 선정기준은 정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일정한 종목의 영구적 수집품과 일관된 전시계획을 가지며, 무엇이 전시되었는지를 발표하고 해설하는 열의를 가진 박물관을 포함하였다.

이에 반해 영국 래스터대학 박물관학과장인 피어스(Pearce, S.)박사는 1990년 자신의 저서에서 세계의 박물관 수는 매우 많아져서 유럽에 13,500, 북미에 1,000, 아시아와 호주지역 2,800, 그리고 기타가 약 2,000이 된다고 하였다. 모두 합하면 약 25,300개소이며 영국은 약 2,300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발표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박물관이 세계전역에 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학문분야에 걸치는 규모와 성격 등의 광범위성 및 선정 기준의 차이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 3. 박물관의 다양성

오늘날의 박물관은 엄청난 다양화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박물관의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 (1) 미술박물관(순수미술·응용미술·현대미술과 특수미술가를 위한 박물관)
- (2) 고고학·인류학 및 민족학박물관
- (3) 역사박물관(사회역사·산업역사·특수고장과 지방역사·전사박물관)
- (4) 과학 및 기술박물관(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과학센타를 포함)
- (5) 철도·도로수송·항공기 및 선박(해양박물관)을 위한 수송박물관
- (6) 자연사박물관(동물학적·식물학적 및 지질학적인 동물원·수족관 및 식물원)
- (7) 농업박물관, 유적박물관, 생태박물관, 야외박물관 및 지역박물관

일반적으로 어느 한 분야로 명확히 구분되는 박물관은 적으며 대부분의 박물관들은 여러 분야가 혼합되어 있다.

### 4. 세계의 박물관학 교육

국제박물관학 명부는 1988년 박물관직원 및 학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으로 38개국

460개 과정을 소개하였는데 이들은 박물관학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과정과 대학의 학부 과정부터 대학원과정을 망라하였다. 이들중 상당수의 과정이 미술 또는 역사와 같은 특정학문의 큐레이터(Curator)업무와 관련된 교육이고, 소수만이 박물관학의 일반과목을 선택과목과 함께 교육하는 과정들이다.

박물관 교육계획은 1908년 미국의 펜실바니아박물관의 산업미술학교(현 필라델피아미술대학)에서 수립되었고, 자연사박물관의 박물관직원을 위한 첫 교육계획 또한 1908년 아이오와주립대학의 자연사박물관이었다. 동양에서는 초기의 박물관학과로 일본 동경의 성바울대학의 박물관학과(1951)와 인도 바로다대학의 박물관학과(1952)가 있다.

## 5. 영국의 박물관학 교육과 래스터대학 박물관학과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200여 박물관이 있으나 대학에 박물관학과가 없는 실정이므로 영국의 박물관학 교육을 통해서 그 발전과정과 내용을 살펴 본다.

영국은 대학에서의 큐레이터교육에 대한 구상이 약 70년전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나 박물관직원에 대한 첫 공식교육은 1930년 대학이 아닌 박물관협회에서 시작되었고 1932년에는 영어권국가에서 인정되는 학위인 디플로마규정이 마련되었다. 그 후 1960년 대초까지 대학과정의 개설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많은 박물관 전문가들은 큐레이터 교육이 보다 박물관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966년 래스터대학에서 박물관학과가 최초로 개설되었는데 이 과정의 신설을 박물관협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박물관학 수료증서를 수여하는 일년과정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증서의 소지자는 박물관협회의 디플로마학위를 위한 시험을 면제하였다. 래스터대학은 1975년 2년 과정의 석사과정을 마련하여 전공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했고 동시에 석·박사연구과정도 마련하여 박물관발전을 위한 연구와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직종의 교육에도 도움을 주었다. 영국박물관협회는 보다 항구적인 교육방법을 찾기위해 1980년 래스터대학과 7년 계약으로 디플로마학위 수여를 위한 강의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박물관학의 디플로마과정을 밟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래스터대학에서 근무에 필요한 박물관학 교육을 받는 등 래스터대학의 규모가 더 늘어났다. 당초 래스터대학은 박물관직원과 박물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영국학생들을 위한 정규과정이었으나 지금까지 많은 외국학생들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았다. 1989년에는 90명중 15명이 외국학생이었다. 영국 학생들은 졸업 후 90%이상이 몇 달 내에 여러 박물관에 근무하게 되는데 조사에 의하면 약 50%는 영국의 지방박물관에, 15%는 해외박물관에, 나머지는 국립·대학 또는 사립박물관에 취업을 한다.

래스터대학과 별도로 맨체스터대학 미술사학과는 1971년 미술관 및 박물관학(Art Gallery and Museum Studies) 디플로마과정을 신설하였고, 런던대학 고고학연구소는 1986년 박물관학(Museology) 석사과정을 마련하였다. 래스터대학과 7년계약이 끝난 영국박물관협회는 박물관요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1989년 박물관교육원(MTI:Museum Training Institute)을 별도 기구로 설립하였다.

래스터대학의 박물관학교육은 여러 학문의 관점에서 실시한다. 주요과목은 「현대의 박물관」, 「수집품 관리 I 과 II」, 「물질문화 I 과 II」, 「의사전달 I 과 II」, 「박물관 관리」 등 5개 과목이며 박물관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교육한다. 선택과목은 「고고학」, 「미술」, 「사회 및 산업역사」, 「박물관 교육봉사」, 「박물관 관리(국제박물관학)」,

「박물관마케팅(레저 및 관광학)」, 「박물관 문서화 및 정보기술」, 「큐레이터를 위한 보존과학」, 「큐레이터를 위한 디자인」, 「과학」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과목을 선택하여 중점교육을 받는다. 전체적인 과정은 이론과 실습이 균형을 이루는데, 실습은 대학 내에서 그리고 박물관 답사 및 8주의 실습근무기간을 활용한다. 교육을 성공적으로 받은 학생들은 박물관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이 박물관에서 근무를 시작하거나 초기 단계에 미리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과정이 짜여 있다.

## 6. 박물관의 유래 및 정의

박물관이란 어떤 학문인가? 박물관에 관한 연구는 18세기 수집품의 분류와 취급에 관한 문제를 다룬 나이켈(Naickel, C.)의 *Museographia*(1727)라는 책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박물관학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 할 분야이다.

Museum Studies란 용어는 점차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박물관교육시 많이 사용하여 왔는데 영국의 래스터대학이 1966년 최초로 사용하였다. Museum Studies는 마찬가지로 박물관학이라고 부르는 Museology와 Museography를 함께 내포하는 일반용어로서 박물관의 운영이론과 실무에 관한 모든 분야의 연구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Museology와 Museography는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던 용어로서 예를 들면 코스타(Costa, M.)는 1776년 출판된 *폐류학의 요소*(*Elements of Conchology*)라는 책에서 *Museographists*를 언급하였고, 독일 드레스덴(Dresden)의 한 잡지는 1878년 Museology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들 용어의 사용에 혼동이 일어났고 문장에서 이들 용어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이에 대해 국제박물관회의는 1972년 이들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Museology는 박물관과학(Science)이다. 이것은 박물관의 역사와 배경,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 연구·보존·교육 및 조직을 위한 적절한 체계,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 종류가 다른 박물관들을 구분하는 사항 등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Museology는 박물관의 목적과 조직에 관한 연구와 관련되는 지식의 한 분야이다. Museography는 Museology와 관계되는 기술의 분야이다. 그것은 모든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방법과 실무를 망라한다. Museology의 성격에 대해서는 특히 아이콤포속 국제박물관학위원회(ICOFOM: International Committee for Museology)의 후원아래 계속 논의되고 있다.

## 7. 박물관학의 역할

박물관학은 오늘날 박물관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기능을 반영한다. 첫째는 자연 및 인류문화유산과 관련된 유물을 수집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둘째는 일반의 교육과 오락을 위하여 전시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유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유물의 보호이론과 실무 즉 유물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체계가 잘 수립된 분야이며, 문화재의 수집과 양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내 및 국제법의 증가로 점차 복잡성을 더해가고 있다. 한편 정부예산 등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박물관들의 공적책임은 유물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러나 첨단과학기술이 적용은 유물관리의 폭을 확

대시했고, 보존과학은 비록 유물관리의 한 분야이나 이제는 그 자체로 전문가·훈련과정·연구소와 출판물을 갖춘 독자적인 분야가 되고 있다.

보존과학은 과거의 복구차원의 보존에서 벗어나 점차 박물관의 환경으로 인한 유물의 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빛·기후·대기조건 등 주위환경을 조절하는 예방적 차원의 보존으로 그 중심이 바뀌고 있다. 보존과학의 전문화 발전추세는 아이콤 국제보존과학위원회가 유물의 종류별 보존분야별로 구분한 25개 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유물의 문서정리는 점차 전문화 되어가는 또 하나의 분야로서 자체의 전문기구·훈련과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며 자체 간행물을 발전시키고 있다.

박물관의 공공봉사에 대한 공적책임 압력증가는 박물관방문객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함은 물론 박물관과 자체프로그램에 대한 방문객들의 반응에 따라 질적인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인구통계학적인 연구와 방문객 또는 비방문객의 동기와 행동 등의 연구를 포함하며, 방문객의 오락과 학습 및 동기부여를 위한 업무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지만(Melton, A. 1935, Robinson, E. 1928), 1960년대까지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상업적이고 일시적인 전시에 중점을 두고 개별적인 자문에 의해 수행되었다. 오늘날은 많은 박물관들이 일상적인 절차로서 자체의 전시와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으며 박물관내에 평가요원을 채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박물관의 모든 기능은 철저한 자원관리에 의존하며, 박물관관리는 유물관리, 건물 및 수목관리 그리고 인사관리를 포함한다. 특히 박물관 건물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최초의 연구논문을 1950년 콜래맨(Coleman, L.)에 의해 출판되었다. 박물관건물에 대한 최근의 논문은 건축적인 고려가 지배적이었으나, 점차 기능적인 면과 유물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일반 방문객을 위해 또한 현재 박물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위해 얼마나 적합한 시설인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박물관학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 8. 박물관학 과목들

박물관학의 과목을 선정하는데 완벽한 방안을 찾기란 힘들다. 아이콤은 1946년 박물관문서의 분류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분류법은 8가지 주 과목으로 나누어지며 최근까지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 (1) 일반박물관학
- (2)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 (3) 박물관과 사회
- (4) 박물관(관리·인사·건물설계와 장비)
- (5) 수집품(취득·문서화·연구·보존 및 안전)
- (6) 박물관 의사전달(Communication) 및 해설(일반대중·전시·교육 및 문화활동)
- (7) 다른 종류의 박물관
- (8) 국내 및 국제 박물관협회의 활동

박물관학 과목의 선정은 교육훈련과정의 기획단계에서도 개발된다. 예를 들면 아이콤 교육단과 아이콤국제인사교육위원회는 전문적인 박물관교육을 위한 공통기초과목을 만들어 1979년 영국 래스터 본회의에서 채택하였다. 이 과목은 일부 변경을 있을지 모르나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의 9가지 주 과목으로 짜여져 있다.

- (1) 박물관의 소개 : 박물관의 역사와 목적
- (2) 박물관의 조직·운영 및 관리
- (3) 건축·설계·장비
- (4) 수집품 : 유래·관련기록·포장과 이동
- (5) 고학적 활동 및 연구
- (6) 수집품의 보호와 취급
- (7) 공개·전시
- (8) 일반대중
- (9) 박물관의 문화교육활동

## 9. 다른 학문과의 관계

박물관학은 다른 학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람들은 제각기 박물관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박물관학은 그러한 견해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박물관을 극장이나 음악과 밀접한 유사성을 가진 예술운동의 일부로 보는 견해다. 이것은 많은 예술행정과정에서 박물관을 포함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박물관은 자연과 역사유적 건축물 및 기념물을 관리하는 관계조직과 밀접한 유사성을 가진 문화재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박물관 수집품이란 그것이 유래한 유적의 배경에 의해서 완전히 이해되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맞는 이야기이다. 또 다른 견해는 박물관이 특히 많은 방문객들에게 상당한 매력을 주기 때문에 관광 및 오락산업의 일부로 볼 수 있고, 박물관의 다양하게 개발된 교육기능은 박물관을 하나의 전문교육기관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박물관학은 미술·고고학·동물학·식물학·지질학 등과 같은 학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고고학 분야의 큐레이터는 박물관에서 근무할 때 자신을 무엇보다도 고고학자로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미술담당 큐레이터는 자신을 박물관 큐레이터라고 하기 보다는 미술사학자로 생각한다. 박물관학은 여러분야에 있어서 다른학문에 상당히 의존한다. 보존과학연구는 화학과 물리학에 기초를 두고, 박물관 건물은 건축학에 그리고 박물관전시는 전시이론 및 교육심리학에 의존한다. 이처럼 박물관학은 그 과목에 대한 한계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에서 박물관학이 그 자체로서 완전히 독립된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박물관학이 많은 다른 학문과 서로 관련이 있으며 그들로부터 별도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 10. 박물관학 교육의 중점요소

오늘날의 박물관운영은 매우 복잡해졌고 박물관은 여러 분야를 잘 이해하는 학위소지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물관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첫째, 박물관이 생기면서 그랬던 것처럼 박물관유물을 잘 보존하고 해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이다. 유물을 인류와 자연유산의 한 부분이다. 책임과 관련된 사실은 유물이 인류와 자연세계의 지식을 넓히는 주된 물적자원이라는 것이며 이 책임은 학술적인 면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유물과 관련된 과목의 학위가 적정수준 제공

되어야 한다. 사실상 대학의 인문학·자연과학·역사학 등 학위에 실물을 다루는 물질문화(Material Culture)과목을 포함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박물관학은 유물과 그 물질을 이해하고 친숙해지기 위한 물질문화란 과목을 포함한다.

둘째, 유물의 보호에 관해 살펴보면 보존과학의 이론과 실무는 외국의 경우 이미 훈련 과정이 있는 특수분야이다. 그러나 유물을 관리하는 모든 요원은 유물의 보존에 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스스로 유물과 표본들의 부패를 최소화하는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유물보호란 한 유물의 물질적 형태만을 말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박물관이 중요성을 두는 것은 그 속에 내포되어 있거나 관련 있는 유물의 정보다. 이 정보의 영구적인 기록정리도 또한 중요하다. 물론 기록의 문서화작업은 많은 분량이 되겠지만 이것은 지식에 대한 작은 기여라 할 수 있다. 컴퓨터 등 정보기술의 발달은 이미 연구를 하거나 또는 전시기획 같은 여러 다른 목적을 위해 방대한 유물에 관한 지식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정보취급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사항은 전통적인 학문의 영역들이 적절히 고안된 체계를 이용하여 그 한계를 쉽게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박물관에서는 문서관리가 통상 등록요원(Registrar)의 손에 달려 있으나 박물관의 기록문서와 그 목적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는 것이 큐레이터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셋째, 큐레이터의 공적인 책임은 전시실에 정선된 유물을 진열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박물관의 전시는 가장 효과적인 의사전달 수단이며, 그 잠재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이것은 실물의 전시를 의미하며 실물은 모조품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향기를 발한다. 유물은 그 자체가 의사전달 매체이므로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의사전달은 단지 유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전시설계와 교육적 잠재력의 개발도 포함한다. 이것은 관람객의 지식을 필요로 하며 전시유물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의사전달 되는가가 중요하다.

넷째, 공공봉사의 하나로서 박물관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는 다양하다. 그것은 박물관이 학술적 목적을 지닌 성격과는 다르게 오락·연예·관광·교육과 이들의 복합된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다른 여러 비영리기관들과는 다르게 이런 종류의 직접시장 영향을 받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은 정상운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전체적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박물관학 교육은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박물관학은 각종 자원들의 관리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다. 이들 자원이란 유물·대지·건물·장비·예산 및 인원 등이다. 박물관의 대다수 중간계층은 학예 연구직·전시설계직·교육직·정보과학직 또는 보존과학직 누구든 비록 자신이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각자 관리기능을 갖는다. 더욱이 그들은 보다 일반상식으로 박물관관리에 기여한다. 관리에 대한 이해는 박물관의 성공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박물관활동은 잘 계획하고 조직하여야 하며 동기가 부여된 직원과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박물관에서 채택·운동되는 각종 관리기법은 박물관학 교육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 11. 맺는말

박물관은 국가적 나아가 세계적 문화유산의 수집·보호·연구 및 해설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사회가 이들 문화유산의 기록정리와 보호의 중요성을 중대시킴으로서 박물관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짐을 경험해 왔다. 새로운 박물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매

년 방문객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박물관의 사회내에서 봉사역할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박물관의 역할 증대는 박물관이 어떻게 조직되고, 수행하는 기능과 기준에 관심이 커졌고, 다음으로 연구와 직무훈련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박물관학에 관한 책이 잘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를 발견하기 힘든 실정이다. 박물관의 진정한 역할 증대와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박물관의 교육과 보급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Burcaw, G.E. : Introduction to Museum Work, 2nd ed American Association for States and Local History, Nashville, 1983
- Hudson, K. and Nicholls, A. : The Directory of Museums and Living Displays, 3rd ed. London Macmillan, 1985
- ICOM : The ICOM Common Basic Syllabus for Professional Museum Training, ICOM News, 1988
- Lewis, G. : Museum, Profession and University : Museum Studies at Leicester, 1989
- Lewis, G. : Staff Training, Museum 39(4), UNESCO, 1989
- Lewis, G. : The Term Museum and Related Words, Museum Studies Notes, University of Leicester, 1989
- Museums and Galleries Commission (U.K.) : Museums and Galleries Commission Report 1988-89, 1989
- Pearce, S. : Archaeological Curatorship, University of Leicester Press, 1990
- Woodhead, P. and Stansfield, G. : Keyguide to Information Sources in Museum Studies, 1989